

David deSilva 박사 , 외경, 강의 4, 자세히 살펴보기: 2 에스드라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David deSilva)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자세히 살펴보기: 두 번째 에스드라입니다.

제2에스드라를 통해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 땅과 그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춘 외경의 마지막 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2에스드라의 경우, 우리는 하스몬 왕조 시대부터 로마 지배 시대, 그리고 그 시대까지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유대의 독립은 기원전 63년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멍에 아래 있지 않았던 때는 대략 80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스모니안 왕조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 유대의 마지막 형제인 시몬의 증손자들이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두 당파 사이의 갈등 때문에 로마를 초대했는데, 이는 고대 세계에서 늘 실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와서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실제로 두 청구인 중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자는 대제사장직으로 회복되었고 유대 자체는 시리아 지방의 로마 총독 아래 일종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부 유대인 통치자들은 로마 대군주, 즉 로마 총독에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가 끝나자 로마의 통치는 더욱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로마의 충실한 동맹자이자 로마의 대리인인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나 다 알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로마의 통치가 한 세기쯤 지나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대왕이 침공한 지 120년 후인 서기 66년경에 이르면, 최초의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널리 거부하는 데에는 이념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토라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통치와 성전의 활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리 잘라도 우리는 어떤 외세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로마의 통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특히 총독을 통해 유대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한 총재가 파견된 후 그냥 무감각한 총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세푸스가 믿었던 것처럼, 마지막 몇 명의 총독들은 그들이 그 속주에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부패한 수단을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벌려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통치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끓어오르게 되었고, 이는 결국 66년에 유대인의 대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열심, 헌신에도 불구하고 유대는 로마 군단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살이었습니다.

9~12개월 안에 위대한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는 갈릴리의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그가 포위하고 일종의 봉쇄한 몇몇 사막 요새를 제외하고는 유대 전역을 진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사다(Masada)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마케루스(Machaerus)와 헤로디움(Herodium)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붙잡힌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에게 예루살렘 포위 책임을 맡겼습니다.

로마인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던 그의 아들 티투스는 예루살렘 내에서의 내전과 기아를 허용하여 적을 최대한 약화시켰고, 마침내 그의 군대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저항을 종식시켰고, 그 결과 가장 불행하게도 성전 자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것이 티투스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볼 때, 로마인들이 성전 산 꼭대기에 세워진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다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티투스가 그 생각에 마음을 열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2에스드라가 등장하는 곳이다. 제2에스드라는 대부분 로마인의 끔찍한 패배에 따른 신학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 송배가 폐지되고, 그런 일을 행한 훨씬 더 나쁜 나라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econd Esdras를 열면 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땅한 것을 얻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면 바빌론 주민들의 생활은 좀 더 나아졌습니까? 그리고 바빌론을 통해 저자는 실제로 로마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언어와 장면을 사용하여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현대 역사, 그리고 심지어 고대 역사의 사람들,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빌론 주민들의 삶은 좀 더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시온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까? 바벨론이 시온보다 더 잘합니까? 이스라엘 외에 너를 아는 나라가 또 있느냐? 야곱의 지파처럼 당신의 성약을 믿었던 지파는 누구입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들이 주의 계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언제 주의 목전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이까? 또 우리와 같이 주의 계명을 지킨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훨씬 더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등장할 예정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질서에 공의가 있다면, 적어도 때때로 당신의 언약에 관심을 갖고 당신과 당신의 언약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처벌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2 Esdras를 더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문학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nd Esdras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의 텍스트로 된 세 개의 텍스트입니다.

2nd Esdras의 핵심, 2nd Esdras 3-14은 서기 100년경에 쓰여진 유대인의 묵시록입니다. 수십 년이 흘렀고 로마는 계속 번영하고 통치를 확장하며 점점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에스드라기 2서의 이 부분을 학술 문헌과 일부 고대 문헌에서 종종 에스라기서 4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외경에 있는 에스드라기 2서의 처음 두 장은 서기 2세기에 추가된 기독교 서문입니다. 이 처음 두 장은 종종 에스라 5장으로 불린다. 그 본문에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추가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처음 두 장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적인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새로운 공동체로 옮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 두 장이 기독교 본문이라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에스드라기 2서의 마지막 두 장인 15장과 16장은 서기 3세기에 추가되어 특히 3세기 소아시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박해와 기타 문제에 대응하여 증가하는 전체 질량에 추가된 기독교적 결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는 유대 묵시록의 핵심인 에스드라 2기의 원래 계층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언약을 훼손할 위협이 되는 경험에 직면하여 언약에 대한 유대인의 세계관과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저자는 종말의 틀 속에서 답을 찾거나 답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의 묵시록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의 묵시록의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많은 묵시록을 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략 기원전 25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에 살아남은 최소한 12개의 종말론을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말론은 공통된 전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큰 그림을 다시 얻고 싶어하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그림의 조각이 제자리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눈앞에는 질문과 긴장,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혼란에 대해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혼란에 대해 필요한 관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더 큰 그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에스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나열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유대 민족이 이전에 이런 종류의 혼란을 처리해야 했던 때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원이 파괴되고 파괴자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번성하는 것을 지켜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점을 가지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바벨론은 일정한 지점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마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자인 4대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사후 보상과 형벌의 장면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생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로마의 미래 심판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해 다른 모든 압제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처럼 이 괴물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메시아 아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회복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더 큰 그림에 비추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에스라서 제4서의 저자가 독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 더 큰 그림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모두 확증될 수 있습니다.

토라에 따라 사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넷째 부분을 살펴보면, 허구의 에스라인 에스라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으나 그는 그것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즉시 그와 그의 후손을 위해 죽음을 정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불과 지진과 바람과 얼음의 네 문을 통과하셨으니 이는 야곱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킬 규례를 주셨음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율법이 그들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들에게서 악을 행하려는 의향을 거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런 성향을 짚어낸 첫 아담은 당신께 불순종하여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병은 영구적이되었습니다. 율법은 악한 뿌리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떠났고, 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백성이 애초에 어떻게 이런 입장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통해 그 도시와 그 성전을 멸망시키실 입장에 이르렀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정말로 모두 신의 잘못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순종에 대한 큰 축복이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저자는 아담의 이야기를 근본 원인으로 본다.

아담은 단 하나의 명령을 어겨 죄를 지었고, 그를 괴롭게 했던 그것이 인류를 괴롭히는 영원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의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압도하는 악을 향한 성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들린다면 그럴 것입니다.

1세기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견해의 발전을 목격했으며, 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제쳐두고 있지만 무료입니다. 바울처럼 에스라도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담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담과 에스라서 4장의 저자는 아마도 그렇게 한 최초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시기 이전에 유대 저자들은 세상의 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감시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했습니다. 아담과 이브, 좋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천국의 천사들이 지상의 인간의 딸들이 정말 괜찮아 보인다고 결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에게 낯설고 위험한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금을 원함으로써 탐욕을 배울 수 있도록, 더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검을 만들어 더 나은 폭력을 배울 수 있도록 금속 채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성욕을 더욱 불태울 수 있도록 화장품의 예술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금지된 예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 후손, 거인들은 인류에게 온갖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거나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히는 악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 본문에서처럼 아담이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더욱 부각될 때인 1세기 이전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는 주요 장소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천사로부터 얻은 대답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확실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법은 귀하의 불평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싸움에 맞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후서 7장에서 이것이 규칙이며, 토라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언급하며, 이는 창조주를 공경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참가하는 대회 의 규칙입니다 . 패배한 사람은 당신이 말한 대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즉,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 예비하신 내세에 들어가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선포한 길이니 곧 백성에게 말하여 살기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택하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신명기 30:19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대화 상대인 천사 우리엘은 그 시합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근거는 하나님의 명예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법 행위에 눈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멸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므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악한 성향에 맞서 싸우십시오. 악한 성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훌륭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는 가상의 인물인 에스라가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인 선택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짓밟힐 때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3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과 언약의 약속을 얻기 위해 언약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선택은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5장에서 그는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선택하셨다면, 왜 그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6장에서 그는 세 번째 불평으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창조 당시를 오랫동안 회상한 후에 요점에 도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침 뱉을 가치도 없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있습니까? 천사가 주는 대답은 하나님의 정의와 토라에 대한 순종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본질적으로 선택은 토라 준수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첫 번째 불평에 대한 천사의 대답의 일부인 선택과 정의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가올 시대로 미뤄진다는 것을 읽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슬픔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의인에게 약속된 것들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으신 악은 이미 뿌려졌으나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아니하고 악을 뿌린 곳이 떠나지 아니하면 선한 것을 뿌린 밭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묵시적인 비관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시대를 포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대는 죄와 그 결과로 인해 망가졌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와 그 결과가 거할 곳은 아직 오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다 지나가고 쓸러가기 전에는 설 자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천사는 또한 이후의 불평과 관련하여 선택이 모든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하나님의 보물로 쌓아 둔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속에 형성된 악한 성향을 극복하여 생명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애쓰신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신명기 30장의 표현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사는 언약의 축복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이 제한된 부분을 죽은 후,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신 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상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만 언약의 축복이 이스라엘 내의 의로운 몫에 임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의 중간쯤에 우리는 한 종류의 묵시적 대화, 즉 환상가와 천사 사이의 대화에서 다른 종류의 묵시적 매체, 즉 일련의 환상으로 전환합니다.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전히 천사와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다릅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과 설명이다. 이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에스라의 이야기에서 현실을 파악하게 되는 전환점으로 간주됩니다. 에스라는 들판으로 나갔다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에스라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슬픔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 전체의 슬픔을 둘러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 국가 전체가 슬픔에 동참하고 슬픔에 빠졌다는 사실로 인해 그녀 개인의 슬픔에 대해 어떻게 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여자가 그의 눈앞에서 크고 영광스러운 도시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기는 시온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녀들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황폐함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전에 결코 누리보지 못한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미래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라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음 일련의 환상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압제자를 심판하시는 문제를 다루는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로마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들에서 우리는 큰 독수리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입니다.

아포칼립스는 실제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군대의 모든 군기 꼭대기에 독수리를 꽂아 두었기 때문에 독수리가 로마의 상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글쎄, 모든 군대 표준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 시의 조각에서요. 또는 그녀의 동전 뒷면에는 세상 꼭대기에 서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독수리에 대한 자신만의 환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12개이고 아니오가 3개, 날개가 12개이고 머리가 3개 있는 독수리입니다. 각 날개는 차례로 황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 명의 황제가 차례로 클로즈업되고, 차례로 머리가 클로즈업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도미티아누스까지의 로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미티아누스와 그를 뒤따르는 몇 명의 보잘것없는 척들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의 메시아는 로마를 기소하고, 독수리를 그녀의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드라기하 11장에서 메시아가 로마에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온 세상을

심한 공포로 다스리고 온 세상을 가혹한 압제로 다스리고 있다고 읽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땅을 판단하셨으나 진실로는 그렇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억압하시고,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자들을 다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사랑하였느니라 . 주께서는 열매 맺는 자들의 집을 헐으시고 주께 해를 끼치지 아니한 자들의 성벽을 헐으셨나이다. 당신의 오만함은 가장 높으신 분 에게로 올라가고 당신의 교만은 전능하신 분에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야, 너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리하면 온 땅이 평안을 얻고 회복되어 너희 포학에서 벗어나리라. 우리는 그것을 지으신 이의 심판과 긍휼을 바랄지니라. 그래서 여기 이 사자의 환상에서 제가 언급했어야 했던 것은 그것이 중요한 메시아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를 가리키는 사자의 환상은 독수리에 대한 심판과 독수리의 몸 전체와 날개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비참한 부분은 에스라의 첫 번째 불평에 답합니다.

여호와여, 아무리 공의로우시더라도 주의 성을 짓밟은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미래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발견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좋은 미래 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에스라는 이방인이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힌트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당선자에 대해 매우 환원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방인도 포함되지 않으며, 이스라엘 대부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 악한 성향에 맞서 싸우고 율법을 지켜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의 창조주를 공경하는 자들을 포함하며,

창조주께서는 이 시대에 그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선한 것들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다가올 나이.

이방인에 관해 저자가 실제로 그들에 관해 말하고 있는 유일한 내용은 에스라하 6장과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난다. 아담에게서 난 다른 족속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침 같으며 그들의 풍부함을 단지 물 한 방울에 비유하였나이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주님.

보잘것없는 이 나라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삼키고 있으며, 우리 곧 주께서 장자라고 부르신 백성, 주의 외아들, 주를 위하여 열심이 있는 자 곧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저희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세상을 유업으로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바울의 뜨거운 질문을 듣지 않고는 이와 같은 본문을 읽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는 초기 기독교 운동이 주변 환경에 맞서 강하게 부각되는 지점이자, 모종교인과 유대민족으로부터 초대교회에 대한 심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에스라서 4장의 마지막 말씀은 토라를 생명의 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서 4장의 마지막 장인 에스라하 14장에 이르게 되면 에스라의 모든 불평과 질문과 도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안에 불순종한 자에게 공의가 있고 이스라엘 안에 의인에게도 공의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손에 넣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그들의 통치를 고발하고 끝내시며, 흩어진 압제받는 백성을 메시아의 보호 아래 모으실 것인지를 예견하신 나라들에게는 공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모두 답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재구성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야기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고 당신이 가진 것이 불타고 성경도 사라졌기 때문에 다섯 명의 서기관을 모았습니다. 에스라가 주위에

다섯 명의 서기관을 모으고, 천사가 에스라에게 마실 불 같은 액체를 줍니다. 그래서 그는 잔을 마시고 지혜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뿜는 것은 성서의 본문과 추가로 70권의 책의 본문이며, 서기관들은 그것을 밤낮으로 기록하여 그 본문을 기록합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자, 즉 우리가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 정사각형 문자로 이 책들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글쎄,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백성을 위한 24권의 책과 백성 중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 숨겨 두고 간직할 70권의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경이 재구성됨에 따라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24권의 책과 추가 텍스트는 똑같이 영감을 받았지만 똑같이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토라를 지키라는 에스라의 입으로 백성들에게 새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의 불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언약에 관한 그의 모든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하 14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생명의 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을 따라 범죄했습니다. 너희는 시온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아 받았다. 너와 네 조상들이 악을 행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네게 명령하신 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곳에 망명 중이고 당신의 친척들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네 마음을 다스려 네 마음을 가르치면 네가 살리라.

그리고 죽은 뒤에는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 에스라, 질문하는 자 에스라는 다시 한번 신명기적 역사관과 그 약속을 옹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을 최초의 유대인 반란의 패배와 성전 파괴의 여파로 유대교가 직면한 당시의 모든 문제들과 씨름하고 그들이

랍비 유대교가 추구하는 바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배치하는 동일한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가져갈 것입니다.

토라를 실천하는 것, 즉 현재와 다가올 시대의 삶의 길로서 토라를 실천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해 거의 단 하나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자세히 살펴보기: 두 번째 에스드라입니다.